

## 심, 꿈틀대는 시가(CIGAR)를 경계하라

### -편 집 부-

#### 담배처럼 해로운 시가

흡연의 폐해는 익히 알려진 사실이고 국내외적으로도 담배와의 전쟁은 한창 무르익어 있는 현실이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힘겨운 상대가 지하에서 꿈틀대고 있으니 그것은 바로 시가(CIGAR).

시가는 담배처럼 연기를 들이마시지는 않는다. 이른바 뼈끔담배처럼 입에 연기를 머금고 있다가 코나 입으로 다시 내뿜는다. 그러면서 연기에 묻어나오는 독특한 향을 음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가의 경우는 그 향을 으뜸으로 친다. 담뱃가루에 일반 담배처럼 순화제 등의 화학물질을 섞지 않고, 종이 대신에 이파리로 싸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러나 건강에의 해로움 역시 담배와 하등 다를 바 없고 더군다나 전문가들은 시가를 피우면 설암이나 후두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

#### 우리는 이제 시가를 피운다

미국인들에게 시가는 전혀 낯설지 않

다.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은 지난 61년 쿠바 미사일 위기 무렵 미국이 쿠바에 대해 금수조치를 단행하기 몇 시간전 당시 공보 비서인 피에르 셀린저를 시켜 자신이 좋아하는 '페티 업먼'시가 1천 장자를 워싱턴 일대에서 사들이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그후 린든 존슨 대통령 이후 시가에 대한 인기는 시들어 갔는데 판매량도 매년 3.3%씩 떨어졌다.

그러나 93년 7억2천여달러(6천5백여억원)로 바닥을 친 도매판매량은 94년을 기점으로 다시 늘어났고, 96년에는 93년에 비해 45%가량이 증가한 12억5천만달러(1조1천2백50억원 가량)가 증가했는데 이같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96년 가을경에는 '시가 애호가'라는 대중 잡지도 발간되었다.

우리 나라의 시가 인식은 어떠한가? 예전 미군부대 주변에서 하나둘씩 흘러나오던 시가가 우리 나라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건 1969년. '한강'이라는 이름의 제품이 국내 생산되면서 부터다.

하지만 그 당시의 이 시가에 대한 반응은 거의 '뭘 이렇게 독해'였다. 당시 소비자의 기호와 너무 동떨어져 도저히 수지타산을 맞출수 없었다고 한다. 전반적으로 그 당시보다 생활환경과 문화적 의식이 차이가 엄청 속도로 향상된 지금의 현실에서 국산시가가 나온다면 어떠한 반응이 나올지 자못 궁금하다.

혹시 압구정동이나 강남일대, 대학가 등의 카페나 바(BAR)에서 폼낸다고 시가를 입에 문 젊은이들을 쉽게 보게 되지는 않을까, 그것이 한낱 기우로만 끝날까?

그러나 우리 나라에도 최근 시가 애호가 가 느끼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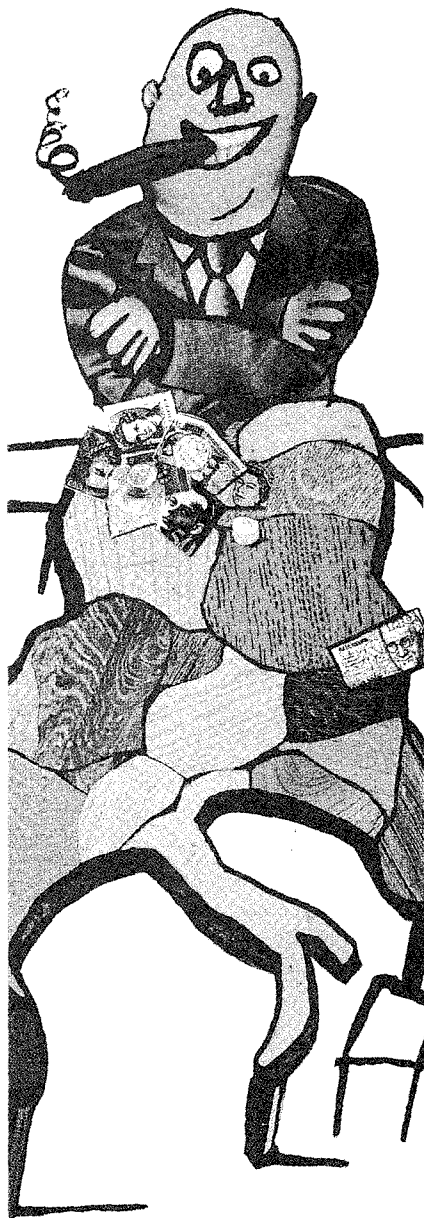
네덜란드산 제품을 수입, 판매하고 있는 한국 로스만스(주)측은 작년 12억원 정도인 시장 규모가 매년 두배 가까이 늘어나 2천년엔 1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최근에 일본에서는 시가애호가 가 급증하고 있고, 우리 나라에도 '서울시가 클럽'등 동호인 모임이 결성되는 점으로 미뤄 머지않아 본격적인 시가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 지하, 시가 바(bar)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백악관에서 3분정도의 거리. 워싱턴 DC 19가 1220번지. 굳게 닫힌 문을 열고 들어서면 군데군데 시가를 피워 문 사람들이 보인다. 남녀 모두 정장차림이다.

은은한 조명아래 쿠바의 음악이 잔잔히 흐른다. 작년 3월에 문을 연 시가클



럽 '그랜드 하바나 룸' 회원에게만 입장이 허용된다. 개인은 입회비 2백만원에 월 회비 15만원, 클럽을 자유로이 드나들며 시가보관함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을 사는 돈이다.

시가, 술, 음식값은 별도로 내야 한다. 90년대판 귀족클럽일까? 실내의 조명기구는 전구의 열이 시가 맛을 변하게 하지 않도록 영국서 특수제작된 것이다. 워싱턴의 원조 시가 바는 3년전 로비스트들이 많이 모여있는 K스트리트의 '오지오'. 지금은 워싱턴에만 시가바가 20여 군데나 된다.

워싱턴뿐이 아니다. 비버리 힐스, 뉴욕 5번가 666번지,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롱비치, 덴버 등으로 계속 번지고 있다.

'코이바', '몬테 크리스트', '로미오와 줄리엣'등 시가광들에게는 쿠바산 고급 시가들의 이름을 들려주기만해도 황홀해한다. 더구나 미국에서는 그런 시가들의 매매나 반입이 불법이기에 그 효과는 배가된다.

「피델 카스트로는 작년 2월 코이바 시가를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해 미국인 1백명을 포함한 외국 명사들을 초대해 1인당 5백달러 짜리 연회를 베풀었다.

86년전까지는 골초였던 카스트로는 자신이 서명한 통에든 시가들을 한통에 6만달러까지 받고 경매하기도 했다. 미국으로 흘러들어오는 쿠바시가의 양도 급증해 96년의 경우 7백만개에 달했고, 그중에서 30~90%는 물론 가짜였다.

세계 여러지역의 신세대 흡연자들 사

이에서 명품 '아바나'시가가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오늘날 쿠바의 시가산업은 진품과 가짜를 가릴 것 없이 활기를 찾고 있다.

지난 수년간 쿠바의 공식적인 시가 생산량은 배로 늘어 작년에는 1억개 정도에 이르렀다. 그들은 카리브해 지역과 캐나다에 근 10여 군데의 시가판매소를 차려놓고 미국의 부유한 자본주의자들을 상대로 팔고 있다.

### 시가는 현재 권력이다

왜 갑작스럽게 시가가 되살아나는가? 우선 그것은 파급력이 큰 대중연예인들의 시가 선호를 들 수 있다. 비버리 힐스의 한 시가클럽의 회원중에는 아놀드 슈왈제너거, 로버트 드니로, 잭 니콜슨 등이 포함돼 있다. 데미 무어, 마돈나도 간혹 시가를 문다.

몇 년째 이어지는 미국 경제의 호황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다. 또한 지난날에 대한 향수, 복고풍도 한몫 한다.

실제로 일부 상류계층에서 옛날의 좋았던 시절을 돌이키게 해줄 무언가를 찾기에 열심이다. 본인들의 유년시절, 시가를 피우던 아버지의 모습은 도전할 수 없는 권위와 행복의 상징 바로 그것이었다. 미련에 대한 오늘의 재현은 시가? 또한 여운이 남는다.

미국의 금연운동은 앞서간다.

흡연자는 곧 소수민족이거나 천박한 사회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 간주되다시피 한다. 그런 분위기를 피해 담배를 즐기고 싶은 백인 흡연자들로서는 '나는

■  
지금 금연운동 진영은  
인간의 건강을 지키는데  
있어서 새로운 다짐을  
가져야 할 때다.  
■

다르다'는 심리적·경제적 차별화 전략이 필수이다.

시가는 바로 그것의 핵심에 있다. 현대의 시가는 특권이고 권력이다.

1990년대 후반, 21세기를 코앞에 둔 지금 미국의 시가는 왠지 이상한 권력의 냄새가 풍겨난다. 시가를 입에 무는 흑인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시가가 대중화되기 이전에 그 예봉을 미리 꺾어야**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새로운 문화는 소수의 특권층에서 시작된다. 곧 그것은 이제 돈(벌이)이 되면서 점차 일반화·대중화의 길에 들어서는데 그것은 일반 대중들의 상류(층)를 닮고 싶은 욕망과 자본(기업)과의 결탁이다. 기업(담배회사)은 돈을 벌고 대중들은 상류의식을 갖게 된다.

사치와 허영을 자극하기 손쉬운 알파한 상술. 시가를 피우는 사람들은 대부분 의사, 변호사, 로비스트, 정치인 등 이른바 전문직 종사자들이다. 비싼 시가를 그들 말고 누가 쉽게 피울수 있겠는가. 물론 워싱턴의 허름한 시가바에는

이른바 신분 상승을 꿈꾸는 애송이들도 많지만 말이다.

외국의 시가 메이저들은 이미 '체 게바라', '피델 카스트로' 같이 선이 짧은 남성을 내세운 마케팅 전략을 수정하여 젊은 여성들도 시가를 찾도록 하는 전략을 개발중이다. 또 전세계 동호인들과 시가향을 나누려는 네티즌들 역시 인터넷 홈페이지마다 빙어처럼 날렵한 손가락을 가진 미녀회원을 내세워 유희하고 있다.

담배와의 힘겨운 한판 싸움에 이어 이제 시가와와의 전쟁도 준비해야 하는 금연 진영의 형편은 새 각오를 다듬고 시가에 대한 공격의 무기도 챙겨야겠다.

시가가 대중화되기 이전에 미리 그 예봉을 꺾는 것만이 아마 최선의 모습일 것이다.

지금 금연운동 진영은 인간의 건강을 지키는데 있어 새로운 다짐을 가져야 할 때다.

자료인용 (NEWS WEEK '97.9.2  
중앙일보 '97.10.27)